인쇄를사랑하는사람들네모(주) 기자간담회 개최

"네모, 존재자체로 의미…사회적기업 승인받도록 노력할 것"

인쇄를사랑하는사람들네모(주)(대표이사 남원호)는 지난 6월 5일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네모 설립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인쇄를사랑하는사람들네모(이하 네모)가 지난 2012년 8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모는 합판업체들로부터 야기된 인쇄산업의 생산·유통·가격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인쇄인들이 가진 자산과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실업자, 저소득 노령층, 중졸이하 저학력자 등 사회적 취약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인쇄조합과 인쇄인 가족 170여명이 설립한 협동조합형 사회공헌기업입니다.

네모가 설립되기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2012년 정기총회에서 공동수주 및 판매기업 설립 출자승인 결의안이 가결돼 출자금 2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5월 7일에 공동수주 및 판매기업에 대한 출자 승인을 받아 명함 및 전단지를 취급하는 합판사업을 추진했고, '인쇄전문협동조합형기업'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자금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20만원 출자하는 등 정관을 제정, 심의하고 2012년 8월 8일 총 발기인 154명중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모는 인쇄시장의 생산·유통·가격질서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 설립으로 인해 크게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네모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네모는 사회공헌기업이기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등 영역침식에 우리가 직접 대응해 기업이윤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인쇄가격 하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현황, 인적구성 등 현재 네모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모는 협동조합형 사회공헌기업으로 서울인쇄조합과 서울인쇄센터와의 MOU를 통해 조합으로부터는 공간을 제공받고 있으며, 서울인쇄센터로부터는 인쇄설비와 교육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모의 시설은 CTP 인쇄판 출력기 1대, 컬러 디지털인쇄기 3대, 흑백 디지털인쇄기 1대, 폴라 재단기 1대, 고속 커팅기 1대, 대형 프린터 1대, 잉크 조색시스템 1대 등입니다. 또한 사무업무에 장애인 3명, 영업활동을 위한 고령자 1명, 현장실무 담당자 2명 등 총 6명을 고용했습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다면 각 장비별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장비 담당자가 디지털인쇄기는 물론 재단기, 고속 커팅기 등 모든 장비를 다룸으로써 1인 5역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최적의 인적구성이 완료된다면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네모 출자금 반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네모 출자금 반환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일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 찬반 여부를 조사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명의를 이용해 공공기관의 인쇄물 수주를 기대한 경우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원하는 경우 ▲네모의 사업 추진경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이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일부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그 결과 170명의 주주 중 8명의 주주만이 출자금 반환을 요청해 지난 5월 27일 반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네모를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162명의 주주들과 함께 다시 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인쇄를사랑하는사람들네모 홈페이지

네모의 사회적 기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모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선정을 위해 3번에 걸쳐 사회적 기업 신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 미비와 짧은 기업 활동기간으로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4월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협동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장애인 등 고용의 지속적인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지난 5월 2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박원순 시장 초청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네모에 대한 사회적 기업 승인 및 중구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인쇄'가 서울시특화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쇄산업 발전전략과 지원이 부재해 인쇄업계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 인쇄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쇄의 메카인 중구에 인쇄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인쇄대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행사로 행사를 승격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인쇄역사박물관 건립과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빠르면 올해 9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모의 사회적 기업 지정 역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으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모가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다면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가격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쇄업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